

여수시, 외식업소 음식가격 '모니터링'

냉면·비빔밥·김치찌개·계장백반·서대회 등 13품목

오는 30일까지 조사 후 내달 11일 시 홈페이지 통해 공개

여수시가 서민생활과 밀접한 외식업소 음식가격을 모니터링해 공개한다. 품목별 가격 변동 추이를 파악하고 자율적인 가격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모니터링 대상은 냉면, 비빔밥, 김치찌개, 삼겹살, 자장면, 삼계탕, 갈국수, 김밥 등 행정안전부 지정 8개 품목이다. 여수 10미(味) 중 계장백반, 서대회, 한정식, 장어구이(탕), 갈치조림 등 5개 품목도 포함한다. 조사는 물가모니터 요원 10명과 공무원 등 12명으로 편성된 조사반이 2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

시는 조사반이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한 물가정보를 종합해 오는 6월 11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내용은 품목별 평균가격, 최고·최저 가격, 가격변동 동향 등이다. 시 관계자는 "품목별 외식업소 음식가격을 꼼꼼히 조사하고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송기홍 기자



장흥군여성단체協, 농촌 총각 결혼도전에 화장품 선물 응원

성공기원 화장품 세트 전달

장흥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홍정남)는 지난 19과 20일 우드랜드에서 열린 '남남북녀 만남' 행사의 성공을 기원하며 화장품 세트를 전달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지역 총각들이 남남북녀 만남 행사를 통해 소중한 인연을 맺고, 싱글탈출에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번 선물을 마련했다.

선물한 화장품 기증세트는 장흥 총각들에게 전달돼 새롭게 인연을 맺은 여성에게 선물 할 수 있도록 했다.

장흥군여성단체협의회는 장흥군과 연계해 인구늘리기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출산용품 지원, 임신부 배려석 및 주차장 만들기, 성폭력 예방교육, 저소득층 희망사다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홍정남 회장은 "총각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좋은 인연을 맺어 국수 먹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장흥=김흥필 기자

여수 찾은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 "교류 활성화 협력"

주철현 시장, 크루즈 입항 확대·여객기 여수취항 요청



21일 오전 추귀홍(왼쪽) 주한 중국대사가 여수시청을 찾아 상황실에서 시장현황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한 뒤 주철현 여수시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날 천사오춘(陳少春) 정부공사참사관, 왕충룡(王從容) 경제상무참사관 등 중국 대사관 관계자 6명과 순선위(孫顯宇) 주 광주 중국총영사관 총영사도 동행했다.

추귀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와 주철현 여수시장이 21일 여수시청에서 만나 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수시는 이날 오전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와 순선위(孫顯宇) 주 광주 중국총영사관 총영사 등이 여수시청을 찾아 상황실에서 시장현황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추 대사는 여수방문을 순선위(孫顯宇) 주 광주 중국총영사관 총영사를 비롯해 천사오춘(陳少春) 정부공사참사관, 왕충룡(王從容) 경제상무참사관 등 중국 대사관 관계자도 동행했다.

여수를 처음 방문한 추귀홍 대사는 양국의 교류 협력 과정에서 여수가 차지하는 비중 등에 대해 인상을 깊게 밝혔다. 우선 추 대사는 여수가 중국과 교류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와 풍광이 편안하게 다가온다는 것, 시민들이 손님들을 따뜻하게 환대한다는 것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추 대사는 "오늘 방문으로 여수가 왜 한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도시인지 알게 됐다"면서 "더욱 큰 미래를 위해서는 국제 크루즈 유치에 노력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더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 대사는 이어 "여수가 더욱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개인적인 채널과 방식으로 여수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추 대사에게 국제 크루즈 여수 입항 확대, 중국 여객기 여수공항 부정기 취항 요청 등을 건의했다. 추 시장은 중국 관광 여행사의 항공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 중국 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수가 국제 크루즈 시설을 완벽히 구축하고 사후면세점 등 크루즈 관광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의 여수시 방문은 출항 사업가 박수관(朴)YC-TEC 회장의 추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송기홍 기자

완도군 '대통령기 전국 등산대회' 개최

상왕산 일원서 전국 산악인 및 가족 1500여명 참여

완도군에서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완도군 상왕산 일원에서 '제5회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하고 전라남도산악연맹, 완도군산악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의 전문산악인 총119개팀 4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남부, 대하부, 장년부, 고등부 등 8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종합우승은 대구광역시산악연맹이, 남부지역에선 한국지엠이, 여자지역부는 울산광역시산악회가, 남부지역은 목포대신학부, 남부지역은 현대자동차산악회(가), 여자장년부는 울산광역시산악회, 남부지역은 한양대학교가, 여자고등부는 대구보건고팀이 각각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박현식 완도부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완도를 찾아주시는 전국의 산악인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안전사고 없는 유익한 대회가 되시길 바란다"면서, 완도에 오셨으니 우리 군 대표특산물인 전복으로 가족들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완도군 문화체육과 직원들은 전복어업인을 돕고자 행사를 찾아 전복소비촉진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무안군, 제232주년 초의선사탄생문화제 성료

초의선사의 탄생 232주년을 기념하고 선사의 차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된 '초의선사탄생문화제'가 지난 19일 삼황을 왕산리에 위치한 초의선사 탄생지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탄생문화제에는 정영식 무안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차 문화계 인사, 군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해 선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선다일여(禪茶一如)의 여행'

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문화제는 18일 제전다례 전야제 행사를 시작으로 19일 행사 당일에는 초의선사 헌다의식 및 봉헌의례, 5법공양 헌다례 등이 진행됐다. 또한, 청소년 글짓기 및 사생대회, 서화 탁본, 초의 붓글씨 쓰기 등 부대행사와 차 음식, 차 도구 등 차에 대한 다양한 볼거리와 초의선사 음식체험, 도자기 빚기, 초의선사 부채 만들기 등의 체험행사도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관광객들이 다도를 직접 체험하며 내면의 아름다움을 함양할 수 있는 차 문화제로서 정착해 가고 있다는 평가다.

문화제에 참여한 관광객들은 "초의선사의 다도 정신을 느끼고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이러한 전통 의식이 계승 발전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초의선사 탄생문화제가 전국적인 차 문화행사로 발돋움하고 전국 다인들의 순례코스 및 차 역사의 메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완도군 e-shop 원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